

교감으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며

강사 : 김남조(숙명여대 명예교수 · 시인)
주최 : 전국여교수연합회
일시 : 2008년 2월 1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우선 저는 석학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바로 석학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려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사고, 새로운 논리로 선진적인 여러 가지들 꿰뚫어 보는 분들이신데요. 세월에 대한 이야기, 아직 읽지 않은 미래의 책 한 페이지를 엿보는 호기심으로 제 이야기를 청한 것 같습니다.

관상을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여러사람들이 신뢰감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 비결을 알아보니 첫마디가, "당신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보다 고독을 안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손님은 잘 맞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고독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반론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발레리(Paul Valery)는 말 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관찰해 보니 고독이 조금 모자라, 더 깊은 고독을 지닐 방법을 고민하다가 반려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능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고독이란 말이 좋아지면서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고독을 알고 고독의 관문을 지나면서 성숙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아픈 마음에 가려진 음울한 울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을 도와주는 효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일전 슬메문을 지나는데, 상여가 깨 나는 소리를 내며 장례식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황량한 풍경 속에 여러 사람이 함께 비통하고 좌절을 섞어 오열하는 장면은 말할 수 없이 숙연했습니다. 성전에 서도 가장 거룩한 곳은 여러 사람이 함께 울음을 터트리는 장소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을 기움입은 필연 인간의 진실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 나온 이들은 그들만 아는 이해를 통해 친구와 동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쁘다고 여겨지는 통념에 있어서 그것의 한편에는 빛을 갖고 가치를 수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지난 수백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문화하는 이들은 사실 낡은 말들 오래된 생각의 낙엽들을 뒤집어 그 밑의 따뜻한 지열을 되풀이 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보다 앞서 무엇을 찾아냄이 아닙니다. 문화가란 사람의 마음을 통과했던 온기를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는 행복을 원하고, 지혜로운 이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행복을 탐냈습니다. 그 행복 안에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점차 그 행복에서 물러서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공통 이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고 가치보다 행복의 대열에 서고자하는 본심이라도, 어느 때에 돌 중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울면서라도 가치의 대열에 서는 것이 교육 받은 우리들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노력하라 하고 극기하라 해야합니다.

2008 한국 석학들로부터 듣는 새해소망 "전문직 여성들에게 바라는 소망"

Soft Power. 이 시대의 여성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신혜경)는 여교수들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창립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여성전문인의 사회적 책임과 지도력이 요구되는 요즘, 김남조 시인은 교육자로서의 학문적 정진은 물론 사회의 어두운 곳과 약한 자를 위한 여성으로서의 역할 발휘를 제안한다.



삶이란 세계와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내고 무한정 먼 거리에 다가가

“전체를 생각하고 타당성과 가치를 봐야 말 안에서 개발·신선한 화제로 행복 누려”

는 사이에 많은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 점차 자기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체 안에서 편안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침내 삶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육체가 영혼 안에 포함된다'는 맥락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시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는 천의 장미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 한 송이의 장미와 천의 장미가 같을 수 없는 데 같다'고 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것, 가득한 절대 가치입니다. 여기서 천이나 만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합니다. 네 살 된 아이가 할머니 핸드폰을 만지면서 금방 할머니의 사진을 찍습니다. 뭔가 너무 정신없고, 우리는 대행업

자에게 많은 부분을 위탁하면서 속도상승의 시대에 1초를 아끼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 100년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한 쪽에 목소리가 있어 본질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야말로 그 본질에 대한 소리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본질에는 천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터득합니다. 부모공경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미도 그러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어느날 아침 철 동산을 올랐습니다. 눈 먼 한 소녀가 연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엮어 걸어주었습니다. 시인이 말할길 "두 눈에 눈물이 맺혔듯 아름다우니 스스로는 감아 모르고 있구나." 눈 먼 소녀가 자신의 어여쁨을 스스로



못 보듯이, 꽃이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눈 감은 진실의 아름다움이 이 시인에게는 감탄을 넘어 묵연의 눈물을 맺게 한 것입니다.

시인 파블로네루다(Pablo Neruda)의 시 '토마토에게 바치는 찬송가'는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채소 혹은 과일 아니면 그 언저리로 여기는 토마토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 모아 찬송합니다. 보편화 되고 오랜 세월 방치했던 가치를 어떤 한 사람이 지적합니다. 관습 속에 잠들어 있던 귀중함을 찾아낸 것입니다. '식칼이 가슴을 찌개면 압도해 오는 붉은 심장'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물러서고 내려앉으며 관용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태롭게 달려가는 발걸음에 대한 심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래도 좋은가' 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내 죽음의 시기를 보고 사에 의해 내다볼 수 있는 시대,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 속에서 개발된 시대, 이런 현실은 '하루아침 꽃동산에 눈 먼 소녀를 만났네. 그는 두 손으로 가려낸 열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내 목에 걸어주었네. 그 순간 나는 두 눈에 맺힌 눈물을 곁잡을 수 없었네. 소녀여, 너는 꽃과 매한가지, 스스로 너의 어여쁨을 눈 감아 아득히 모르고 있구나.' 우리 인간은 사실 상당히 영광된 존재입니다.

저는 어느덧 노년기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과 이제 겨우 삶의 낮설음이 가시려 하는데 내 생애가 저물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낮설어서, 언제라도 적음이 안됐는데, 이제 삶이 맛 들여지고 친숙해졌는데, 이제부터 살줄 알 것 같은데 벌써 생은 저물어 갑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떤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답한다면 "잘 죽습니다. 노년을 위해 준비된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걸핏하면 잠이 안 오고, 조금만 상처 입으면 면도날 필요로 그든 듯 싶으러 가는 유령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말도 적어지면서 바라보는 쪽으로 침착합니다. 이제 겨우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축복도 하게 됩니다.

석학으로서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선 전체를 생각하는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타당성과 가치를 봅시다. 그리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마음을 기울여 서로의 가슴과 가슴의 교감을 확산합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의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화살의 선수관 말 안에서 개발을 하고 언제나 뜻뜻한 화제로 말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맹인의 오케스트라 관련기사가 낫더군요. 고도의 집중력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신비한 어떤 번역의 기술이 있어서 우리를 감동케 할까요. 하 나의 보물과 같은 작은 주위를 선물 받은 인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사를 공부하십니까? 역사를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스님에 한함)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궤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각 3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 개명, 작명, 범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명이 어렵거나 궁급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오,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귀의 삼보하움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발,마춤형 제작

방안용달신

세계절단화

최고의 선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중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등 깔창, 미끄럼 방지 눈슬립 깔창, 수작업으로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물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성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반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동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불교서원 062)228-3056 / 화진승학 062)228-2870 / 서울: 부산승학 02)738-5407 / 대전: 불교문화원 042)274-3727 / 대구승학 042)254-8772 / 제주: 김윤경승학 064)724-796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빛다불교점 054)655-2525 / 경북(예천): 빛다불교점 054)655-2525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